



재래시장 생닭·오리 판매 일시 중단

보건당국 금지령에 시장 생닭 판매점 휴업 '불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창·부안에서 발생한 뒤인 19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닭전머리 일대에서 시장의 복적거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0여개 생닭 판매업소는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닭·오리 사육 시설에는 모두 포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생닭을 사러 들렀던 일부 손님들도 영문을 모른 채 발길을 돌렸다.

S닭집 주인 박모(68)씨는 "AI가 발생한 뒤 정부에서 생닭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져 어제부터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손님이 오더라도 판매할 수 없더라 모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양동 시장 내 닭전 머리 일대 생닭 판매업소의 영업 중단은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국립수산식품부도 이와관련, 지난 18일 밤 10시부터 20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동안 광주·전남지역 생닭 및 오리 등 가금류 판매 금지령을 처음으로 발효했다.

박씨는 "장사는 못하더라도 살아 있는 짐승을 굶길 수는 없어 먹이를 주러왔다"면서 "내일까지 영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태가 길어지면 판매 중단 시기도 길어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러워했다. 당장, 설 대목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양동시장 뿐 아니라 말바우·남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재래 시장도 비슷하다.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등에 따라 광주 지역 모든 재래 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시설) 사용 제한·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든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광주·전남북 가금류 오늘 밤 10시까지 일반 치킨집은 정상영업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20일 자정까지 광주·전남·북,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14만여명, 축산 차량 2만여대의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효는 지난 2012년 2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래시장 내 생닭판매업소가 모두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익혀 먹으면 안전” 발표 해농고 영업제한 상인들 불만도

일각에서는 AI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에서 30분 이상,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막상 생닭 판매업소의 판매를 금지시켜 소비자에게 또다른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태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칫 장기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좋

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휴업으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생닭 판매를 하고 있는 한 "원래 장사도 안되는 데, 하

루 이를 장사를 안한다고 매출에 큰 차이는 없지만 장기화되면서 아예 손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내 생닭판매점이 AI 때문에 문을 닫고 휴업 중이다.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재래시장내 생닭판매점은 의무적으로 20일 밤 10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H5N8형 AI' 사람에게 감염사례 없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당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네 차례 H5N1형 AI가 유행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닭·오리 등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이 이뤄지면서 인체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이돼야 하고 사람과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해 일반인이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AI 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익힌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등을 먹어도 전염 위험성이 없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조한 날씨 산불 비상

19일 전남서 하룻새 10여 곳 발생 ... 1명 숨져

전조한 날씨 속에 전남 지역에서 하루에만 5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말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19일 오후 2시50분께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K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양모(86)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날 낮 12시 50분께 함평군 학교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 잡목 등 500㎡ 가량을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지는 등 하루 동안 여수·나주·곡성 등 전남 5개 지역에서 주민 부주의·입산객 실화 등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또 지난 16일 자정 목포시 대양동 산단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주차중이던 24t 덤프트럭에 불이 나 한대가 전소하고 옆에 있던 2대의 트럭에도 번져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찰은 트럭 뒤 타이어에서 발화된 점 등으로 방화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통 사고도 잇따라 지난 18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용교 인근 왕복4차선 도로에서 김모(50)씨가 운전하던 4.5t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17일 오전 10시5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중이던 24t 덤프트럭에 불이 나 한대가 전소하고 옆에 있던 2대의 트럭에도 번져 소방서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견인차가 1차로에 멈춰서 있는 시점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착각,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에취!” 여기저기 기침소리

광주·전남 독감 환자 급증 1000명당 의심환자 1·2위

광주·전남 지역에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주차(2013년 12월 29일~1월 4일) 전국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19.4명으로, 앞 주

(2013년 12월 22~28일) 15.3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으로 삼는 12.1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상황이 특히 심

각하다. 지역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3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도 30.5명으로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지역은 서울 28.0명을 비롯, ▲경기 24.2명 ▲울산 20.9명 ▲인천 18.2명 ▲부산 17.4명 ▲경북 15.3명 ▲대구 14.4명 ▲전북 13.9명

▲제주 13.9명 ▲충남 13.8명 등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대전(3.0명), 강원(5.6명), 경남(7.4명), 충북(9.6명)에 비해서는 최고 10배 이상 환자 수가 많다.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인플루엔자가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흥기강도의 황당한 이유... “제대한 군부대 위문 위해”



○--이른 아침에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서 자신이 제대

한 군 부대 위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해 경찰이 여러동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하모(21)씨는 1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김모(여·61)씨의

분식점에 흥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김씨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던 중 옆 상가 주인에게 붙잡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제대한 지 1년이 지난 군 부대를 위문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침 일찍 범행한 점도 그렇고, 보기 드문 범인이다”며 실소.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능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남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관주 차생원 : 062)224-2902 관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관주 롯데점 : 062)221-1037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062)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신, 전주고등학교출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 교사, 교수
			대기업 간부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감사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서산동) (063) 275-7766